

#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관리인에 바란다

**올해**는 정부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어서 환경업무종사자들 비롯 국민들에게 있어 매우 의미있는 한 해이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는 연초부터 환경 개선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기업체와 주민에 대한 계몽활동을 펴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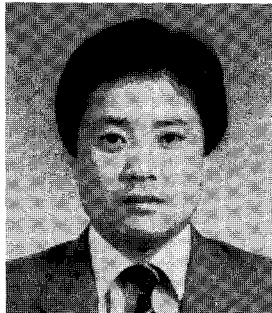
그러나 환경문제도 정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 혼자 힘만으로 빠른 시일안에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이견을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의 강한 소신에 환경관리인, 민간 환경단체, 주민 등 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자각이 뒤따라야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살 수 있음은 자명한 논리이다.

이중에서도 지금까지 방관자 위치에 있어 온 대다수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환경개선을 앞당길 수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 명예환경 감시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처는 지난해 사회단체 임



金壽完  
(국민일보·사회부기자)

**지난해  
명예환경감시원이  
보인 활동은  
환경보전은 내손으로 한다는  
주민참여현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값진 것이다.**

직원, 새마을 지도자, 동·이장, 회사원, 교사, 공무원, 지역주민 등 환경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 9천9백26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폐수 무단방류 및 오물투기 행위 △악취·매연·소음·진동발생 행

위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세차 행위 등을 신고하고 주위 사람 또는 자신의 환경에 관한 건의사항을 당국에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합성세제와 1회용 생활용품 적게 쓰기,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하기, 야외에서는 도시락을 이용하고 쓰레기는 담아오기 등을 주위 사람에게 권유하고 자신들도 이를 실천해 오고 있다.

환경처 집계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신고한 환경오염행위는 모두 1천3백여건으로 이중 4개업체가 조업정지를 당하고 16개소가 검찰에 고발됐으며 16개업소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물론 이같은 신고건수가 주목할 만큼 엄청난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환경 보전은 나부터 내손으로 한다」는 주민참여 현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값진 것이다. 신고건수의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정부가 준 특혜가 있다면 그것은 감시활동을 위해 전국의 국립공원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뿐이다.

『내 할 일도 많은데 공연히 시간 빼앗겨가며 원한 살 일을 왜 하느냐』『단속기관이 있는데 왜 내가 나서서 신고를 하느냐』 등의 핑계를 스스럼 없이 대며 애써 무관심을 표해온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때 이들의 소리 없는 활동에 경의를 표해 마땅하다.

환경처도 이들의 활동이 확산될 경우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음을 중시, 이들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홍보지「환경소식」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고「환경과 생활」만화자료 등을 수시로 명예환경 감시원들에게 제공하여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어 연2회 간담회 개최 및 오염현장·견학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환경상식과 신고 요령 등을 적은 수첩을 제작하고 순회 홍보반을 운용해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감시활동 우수자에 대한 장관표창을 실시하고 각종 환경 관련행사에 이들을 초청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또 올해안에 현재의 명예환경감시원 수를 1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조성하는데 있어 환경관리인들이 차지하는 몫도 지대하다.

환경관리인은 오염행위의 주범인 기업체를 감시하는 보안관으로 볼 수 있다.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미운



“

**최근 환경처장관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환경관리인인  
人事상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기업내 타부서에 비해 보수 승진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며 실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환경관리인도 상당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許南薰환경처장관이 기업인들에게 환경관리인이 인사상의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許장관은 기업체의 공해방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기술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범방지시설을 견학케 하는 등 배출시설관리인의 사기를 높여줘 환경개선에 앞장 서달라고 부탁했다.

인구와 공장의 증가로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늘고 자동차 등의 증가로 대기 오염이 가속화 될 것이 불보듯 뻔한 현실에서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관리인의 역할은 점점 그 비중을 더해 갈 것이다.

특히 공해문제가 국내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제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볼때 이들이 건투해야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 ◻